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다

키야

키야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다
2022 년 1 월 12 일

난아래문제에대해파격적인이론을제기할만큼뚝뚝하지도, 새로운
관점을제시할만한사회적위치에놓이지도않았다. 페미니즘에관심
이없는사람을설득할수도없을것이고, 이주제에대해박식한자는곳
방귀뀌며넘길수도있다. 다만, 독자가페미니스트운동에의욕이앞
서페미니스트를자칭하는시스젠더남성이라면이문제에대한다음
과같은내관점을공유한다.

성과젠더에대한내생각들을모아놓고분석해본다면, 페미니즘의요소가많겠
지만, 난페미니스트라자칭하지않는다.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기때문이
다.

아직철이덜든사람들은페미니즘을여성우월주의과동치라고여기겠지만, 그
들이뭐라하든, 페미니즘은성과젠더간의억압적인관계를허물고평등한사회를
만들기위한운동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론, 성차별주의와가부장제를없애는것이
페미니즘의목표이다. 남성이주도하는체제에반대하고맞서는운동이기때문에
“여성주의”, 즉페미니즘 (feminism) 인것이다.

가부장제는남성의사회적권위와통치를정당하게여기는위계구조이다. 즉,
남성이아닌모든이, 특히여성을복종시키는체계이다. 여성이단순히여성이라는
이유로사회적하위계층에놓고, 같은원리로남성은단순히남성이라는이유로
다른모든성과젠더의머리위에놓인다. 이렇게남성과여성은서로대립구조에놓
여, 한쪽에게는특권을, 다른하나에는억압을선사한다. 이런가부장제는지배자
가될남성과피지배자가될나머지성들이존재해야만성립한다. 때문에, 성차별적
인환경에서자라이부조리를내면화하고, 수많은이들의고통을유발하는가부장
제의혜택을누리는남성은그존재자체가여성과다른모든성과젠더에게는억압적
이다¹.

일부남성은그특권을누린다는것을체감하지않을수있다. 또일부는심지어여
성보다불리한상황에처했을수있다. 나아가모든여성이너성보다아래에놓이지
않았다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는가부장제에의한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것
이아닌“교차성”(intersectionality) 에의한것이다.

사회는복합적인상호작용으로이뤄져있다. 사람이다른사람과관계를맺을수
있는방법은무수히많고, 이때형성될수있는억압적관계의종류도그만큼많다. 투
표권을지닌노동자양성애자시스젠더장애인남성과, 건강한신체를지닌외국인
트랜스젠더부르주아여성이있다면, 이들중누가절대적으로더나은위치에놓였

¹ 이내용을자신의정체성에대한공격으로받아들이거나, 자신의남성성에죄책감과무기력함을
느끼이들을위해다음을강조한다. 이문제는“악한사람”또는“착한사람”에의한문제가아니다. 복합
적인체계가한성을다른나머지성위에다가놓은, 개개인의문제가아닌우리모두를에워싸는구조상의
문제이다. 위내용은모든남자가필연적으로“악”하다는말이아닌, 억압적인성차별적구조의꼭대기
에놓였다는말이다. 아나키스트라면이러한구조적인문제가존재한다는사실은이해하기어렵지않을
것이다.

을까? 다양한사회정치적요소가서로엇갈려편의를받거나해를입는것이교차성이다. 어느한방면에서는억압을행하는자는다른여러방면에서는억압을받는자가될수있다.

물론성차별주의와가부장제는여성에게만해로운것이아니다. 남성도이런체제의피해를입을수있다. 이상적인남성성을충족하지못하는남자도결국에는사회적으로매장을당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요구된남성성을충족한남자는지배자가될수있어도, 여성성을충족한“완벽한”여성은결국남자의지배를받는여성이다. 가부장제사회의눈에“최고의여성”은남자가거느리기편한아랫것에지나지않는다. 서로같은층의피해를입는다해도, 하나는반동때문에개머리판에걸친어깨가나가는정도이고, 다른하나는발사된총알을맞는상황이다.

가부장제의특권을누리는자가이사실을자각하지않고있다는것은어찌보면억압적체계가의도대로유지되고있음을보이기도한다. 특권을누리는자는그불평등한상태가자신에게는해롭지않기에자연스럽다여기기마련이다. 남자인우리는비록남자이기에겪은압박감과부당함을알아도, 여성이기에겪는고통을알수는없다. 막을수없는생리를법적으로보호받아야하는것, 가족내에서여성이기에항상뒷전에남겨지는것, 실패를하면여성이기에당연하고성공을해도자신의성공이아닌“특출난여성”의성공으로기억되는것, 압도적으로높은성폭력을당할확률과폭력을당해도낙인은피해자에게찍히는것, 대부분의정신적육체적압박을책임져야하는육아를도맡는것은선택이아닌자연스러운사실로여겨진다는것, 자신의신체를상징적으로토막내값을메기는사회에서산다는것...

이말고도수많은형태의억압을받으며살지않는것이성차별가부장제사회에서특권층인남자로서사는것이다. 이런특별한취급을받는것을거부하더라도, 성차별적사회의구조는남자의발밑에여성을굴복시킨다. 가부장제가사람의의사를고려했다면과연억압적일까?

특권은그것을누리는자와누리지못하는자를구별지어야만성립하기에, 남자로서존재하는것자체가억압자가되는것이다. 남자로서존재하기에, 여성의고통에공감하고이에연대할수는있어도, 이를절대로체감할수없고, 진정으로이해할수없다.

내가페미니스트를자칭하지않는이유가여기에있다. 사회는남남성으로인식하기에내게는그에따른기회가더주어진다. 나는페미니즘이라는강령을통하지않아도사람들이내생각을들게할수있다. 페미니즘이기껏마련한남성의억압이존재하지않는안전지대에내가끼어들어그곳의다른성과젠더의사람들을억압하고싶지않다. 세상이들어야하는것은페미니스트들의목소리이지, 나와같은또하나의남성의목소리가아니다. 페미니스트운동에있어남자로서내역할은, 그들의목소리를들고, 나와내주변의남자들이행하는억압을멈추고남자로서가부장제에도전을거는것이다.

성평등은우리모두에게이로운것이지만, 성차별과가부장제에맞서싸우는것은남자가아닌이들의몫이다. 남자인우리들은그들에게길을내어주고도움이필

요할때연대를하는, 이투쟁의주도권을전페미니스트가아닌, 동맹자의역할에서
그친다.

우리는우리가누리는특권을인지하고, 다른모든성의고통에공감하고, 페미
니스트의투쟁에연대하지만, 그들의목소리와주도권을대체할생각은없다. 페미
니스트를자칭하지않는것은이러한현실을이해하는것이다: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다.